

대전엑스포 '93(4)

대전엑스포 개최년도인 1993년을 기념하여 93미터 높기로 세워지는 한빛탑은 과거로부터 출발한 과학기술이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발전의 기상과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정부관을 비롯한 25개의 국내 전시관에서는 주제별로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며 1백개국 이상의 국가와 20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국제관에 서로 개성적인 전시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93일의 개최기간 동안 50여종의 문화예술행사가 1천3백여회에 걸쳐서 화려하고 다채롭게 펼쳐질 전망이다.

대전엑스포에 대한 참가 열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과학기술전시 및 문화 예술행사의 흐름을 살펴본다.

1. 대전엑스포의 상징 '한빛탑'의 의미

박람회장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한빛탑'은 대전엑스포 '93의 상징탑이다. 대전엑스포의 주제인 '새로운 도약에의 길'을 구현하는 전시장으로서, 박람회장의 구심점으로서, 그리고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대전엑스포를 영원히 상징하는 기념물로서 길이 사랑받게 될 것이다.

'한빛탑'의 높이는 93미터인데, 이것은 물론 대전엑스포 개최 연도인 1993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한빛탑'은 하단부, 중앙부, 상단부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단부는 과거, 중앙부는 현재, 그리고 상단부는 미래를 상징한다. 또한 탑신의 하단부는 첨성대를 상징하

고, 중앙부의 고리형 전망대는 우주 정거장을 상징한다.

특히 전망대의 두 개의 눈은 살아 숨쉬는 한국인의 예지의 눈을 상징하는 것이다. 상단부의 금속 원뿔은 미래를 향한 한 줄기의 빛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상징한다. '한빛탑'은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한 줄기의 빛'을 표현하고 있다. 과거에서 출발한 과학기술이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발전의 기상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낮에는 상단부의 스테인레스 탑신이 태양빛을 반사해 주고 밤에는 중앙부의 전망대에서 강렬한 두 줄기의 빛을 뿜어낸다.

낮이나 밤이나 도약의 빛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39미터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면 엑스포 회장과 주변 지역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이 전망대는 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므로 관람객들이 우리나라와 세계의 현재를 한 눈에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전망대에는 8대의 전자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박람회장을 4방 8방으로 섬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

관람객들은 '한빛탑'의 하단부에서 승강기를 타고 중앙부의 전망대까지 올라가면서 현란한 빛의 여행을 하게 된다. 내부 장치에 의해 내뿜는 아름다운 빛의 터널을 통과함으로써 우주 여행을 하는 듯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엑스포 개최 기간 동안 '한빛탑'은 각종 전시와 행사, 오색 연기, 특수 조명, 음향 연출

등으로 대전엑스포 상징탑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2. 엑스포 과학기술 전시계획(한국)

‘정부관’을 비롯한 25개의 한국 전시관에서는 각 전시관의 소주제별로 실로 다양한 전시가 펼쳐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일부 전시관,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과학기술 전시 계획만 간단히 살펴 본다.

‘자동차관’에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차세대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태양전지자동차’, 그리고 경주용 차, 분리형 자동차, 6개의 다리로 걸어다니는 자동차 등이 전시된다.

‘소재관’에서는 머리카락보다도 가느다란 굵기로 수 톤의 무게를 지탱하는 ‘질긴 쇠’가 전시되는가 하면 충돌 사고에도 탑승자가 보호되는 견고한 자동차, 기둥이 없이 허공에 설치되는 고가 레일, 수상 도시와 해도시 등 신소재가 실현시켜 줄 미래 세계가 펼쳐진다.

특정 온도가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형상기억합금, 승용차를 들어올리는 가느다란 탄소섬유, 섭씨 2백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금속보다 내마모성이 강하고 가벼우며 충격에 강한 뉴세라믹스와, 이러한 신소재로 만든 신제품들이 선보인다.

‘자연활용관’에서는 무공해 태양전지, 태양광 가로등, 태양 에너지를 공급하는 우주 광발전, 무공해 수소 에너지, 왕겨탄, 음식 폐기물과 인분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파도를 이용한 파력 에너지,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의 세계를 보여 준다.

‘정보통신관’에서는 국내 최초로 궤도차량 전시 기법을 보여 준다.

관람객들은 1백 55량의 궤도차에 나눠 타고 초당45센치의 속도로 4백 5미터의 궤도를 돌면서 9막 48장으로 펼쳐지는 통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세트, 로봇, 조명, 특수효과, 음향, 영상 등을 통해 여행하게 된다.

‘테크노피아관’에서는 실물 크기보다 수십

배나 큰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 컴퓨터의 정보처리과정을 체험하게 되고,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공의 인물과 날을 뛰거나 승부차기를 하게 되는데, 시스템 밖에서 보기에는 혼자서 허공을 헤매는 것같이 보이지만 본인은 실제 상황과 똑같이 느끼게 된다.

이밖에도 각종 국내 전시관에서는 차세대 꿈의 열차인 ‘자기부상열차’, ‘과학위성’, ‘과학로켓’, ‘무인비행선’, ‘꿈돌이 로봇’, ‘사물놀이 로봇’, ‘조각 로봇’, ‘힛 펌프’, ‘페타이어 아스팔트’ 등등 과학기술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대전엑스포의 주제를 구현하고 과학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3. 엑스포 과학기술 전시계획(외국)

대전엑스포에서는 100여개의 국가와 20여개의 국제기구가 각각 개성적인 전시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선 그 가운데 몇몇 나라의 과학기술 전시 계획만 간단히 살펴 본다.

‘프랑스’ 전시장에서는 과거의 프랑스 발명품, 루와시 공항의 제3터미널 모델, 공항 레이다와 신호 장치, 대중 수송 장치, 화물 수송기, 전기자동차, 공기 및 수질 측정기구, 가벼운 도시 철도, 지하 터널, 신도시 개발, 원자력 발전소, 태양 에너지 발전소, 자연 가스의 해양 수송, 포장 및 재활용, 쓰레기 재생, 유독 물질을 없애기 위한 발전소, 수질 처리 공장, 부식 방지 장치, 수질 분석기구, 오염된 토질 정화, 관개 체계, 인공위성, 해저 광케이블 통신 라인, 스마트 카드, 한국과의 기술 및 산업 협력의 예, 환경 정책, 환경 관련 전문 공공기관, 환경 보전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선보일 계획이다.

‘페루’ 전시장에서는 스페인 식민시대 전과 식민시대의 금·은 제품,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스페인 점령 이전의 어업 기술, 그리고 만들어진 지 10세기가 넘는 것으로서 채소즙으로 만들어진 수공예 제품들을 보여 준다.

영상물로는 페루의 생산 분야 현대화 정책

과 새로운 투자, 기술 이전 등을 보여 준다.

‘태국’ 전시장에서는 비단 생산 과정, 보석 세공 기술, 과거 생활 방식, 난초 개종 기술, 난초 향수, 빛과 색상, 해양 동물 연구, 유전자 선택과 분리, 세계 최대 민물 고기용 수족관, 산호 보호 현황 등을 보여 준다.

‘스리랑카’ 전시장에서는 기원 전 3세기에 고대 신할인이 세운 역사적인 수도의 수많은 유물, 세계 최초의 병원, 스리랑카의 역사가 기록된 비문, 스리랑카의 성서가 기록된 야자 잎, 기원 전 2세기에 세워진 300피트 높이의 거품방울 모양 사리탑, 보석이 박힌 원형 유골집,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 석조 성(5세기에 건축), 불상, 석조전 사원과 수도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상, 전통 문양 장식, 금속 판화, 자유 무역지대 등을 다양하게 보여 준다.

‘중국’ 전시장에서는 문방사우, 우주 항공선, 로켓, 물가 전시관, 양쯔강 협곡 건축 모형, 자연 경관, 현대 생활 양식 등을 보여 준다.

관람객들은 세계 100여개국의 독특한 전통 기술과 문화, 첨단 과학기술 등을 돌아 보면서 지구촌의 미래에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 엑스포 문화 예술행사 계획

대전엑스포가 개최되는 93일 동안 50여종의 문화 예술행사가 1,300여회에 걸쳐서 화려하고 다채롭게 펼쳐진다.

우리 나라 역사상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국제적인 문화 예술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는 것은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

이러한 문화적 사건은 엑스포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엑스포 문화 예술행사는 우리 나라의 문화 예술 발전과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그만큼 늘려 주게 될 것이다.

대전엑스포 '93의 문화 예술행사는 몇 가지의 목표를 두고 있다.

첫째, 주제에 걸맞은 세계 수준의 다양한

문화행사.

둘째, 전 세계의 문화 예술 유치를 통한 지구촌 문화 교류 및 축제의 장 마련.

셋째, 장외 경축 문화 예술행사 병행 개최를 통한 범 국민적 축제 분위기 조성.

이러한 목표 아래 프로그램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공식 행사로는 개·폐회식을 비롯하여 참가국들의 행사인 내셔널데이, 국제기구의 행사인 스페셜데이, 한국의 날, 시·도의 날, 기업의 날, 단체의 날 등의 행사가 있다.

문예 전시행사로는 첨단기술 미술전인 테크노아트전, 비디오아트쇼, 국제 전시행사인 리사이클링 특별미전, 한국의 도자기 비교·귀향전, 국제 서예전, 세계 아동 미술전, 미래 테마파크 조각전 등이 있으며, 일반 문예전시 행사인 한국의 풍속화전, 촉각 조각전, 전통 공예 실연전 등이 있다.

공연·축제행사로는 첨단기술 공연행사인 개막 축제, 뮤지컬, 현대 음악제, 컴퓨터 영상 크래픽 오페라, 테크노 종합무대, 갑천 수상 영상쇼 등이 있고, 국제 문화 행사인 국제 민속축제, 외국 단체 초청 공연, '93미스 월드 유니버시티 선발대회, '93 세계 기네스 기록 도전대회, 국제 에어로빅 선수권대회, 세계 우주소년단대회, 엑스포 영화제, 거리의 불거리 등이 있으며, 대중 문화행사인 엑스포 그랜드쇼, 엑스포 패션쇼, 팝스 콘서트, 섬유 축제, 축제 행렬 등이 있고, 전통 문화행사인 전통예술 공연, 마당놀이, 청소년 축제 등이 있다.

문화 예술행사 시설로서 대공연장, 엑스포 극장, 놀이마당 등의 공연장과 재생조형관, 문예전시관, 전통공예실 등의 전시관과 갑천 주변, 한빛탑 광장, 축제거리, 거리 공연 공간, 중앙 광장 등의 야외 문화 행사장이 마련돼 있다.

세계 각국의 전통예술과 첨단예술이 모여 박람회장을 감동적인 축제의 장으로 수놓게 될 것이다. <♣>